

급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었다.

매뉴얼, 곧 업무기록이란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침서도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앞서 거듭했던 실수를 되밟지 말자는데 뜻이 있다.

미국에선 헌집을 사면 그 집에 관한 신상명세서도 아울러 넘겨 받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질문서부터 챙기지만 그쪽 사람들은 집 명세서를 더 귀중하게 여긴다. 왜 그럴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어디 집만 그런가. 미국 반도체(半導體) 기업의 태두인 「인텔」회사는 주기적으로 공장 기술자들이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무슨 제품이 능률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며 왜 그랬는지, 실패했으면 그건 또 왜 그랬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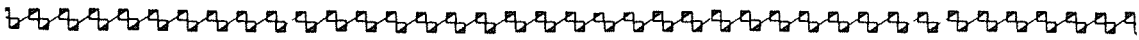
또 근무성적으로 나중에 평가된다.

재미있는 것은 잘 했다는 사람만 평가해 주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체계있게 잘 설명한 사람도 잘한 사람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낭비도 그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값진 생산이고 창출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업무에서 「선진국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디 업무뿐만이, 우리가 집에서 일기(日記)를 써놓는다면 우리의 후세들이 그것을 보고 선배들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요즘 직장에서 열심히 노트를 적고 있다.



의료기사면허 1만5천5백1명

-보사부 물리치료사는 2천2명-

보건사회부가 3월 31일 현재 집계한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관리현황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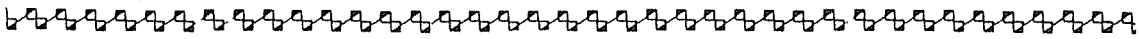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는 물리치료사 2천2건, 방사선사 3천6백21건, 작업치료사 36건, 임상병리사 6천8백39건, 치과기공사 2천9백69건, 치과위생사 2천29건으로 밝혀졌다.

면허 관리 현황

'85.3.31 현재

의 료 기 사	물 리 치 료 사	2,002
	방 사 선 사	3,626
	작 업 치 료 사	36
	임 상 병 리 사	6,839
	치 과 기 공 사	2,969
	치 과 위 생 사	2,029
	소 계	17,501

('85.4.8 후생신보에서 발췌)



영남대학 부속병원 물리치료실을 찾아

병원 탐방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기념과 해외협력기금(O.E.C.F.)의 차관을 도입하여 1983년 5월 28일에 개원을 하였다.

지하 3층, 지상 13층의 매머드 종합병원으로 최신 의료장비와 과학적인 병원관리 운영으로 병상수 850 bed (개원당시 350 bed 가동, 현 521 bed 가동)의 단일 병원으로서는 한강이남에서 가장 크다는 점과 Escalator가 가동되고 수술실과 입원실, 기타 특수지역에 소독된 공기가 공급되며 또한 잠마 카메라와 C.T 촬영기재는 국내에서는 가장 최신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향토의 국민건강을 위한 종합건강진단센터가 12층에서 설치되어 포항제철과의 자매결연과 영남지역의 결속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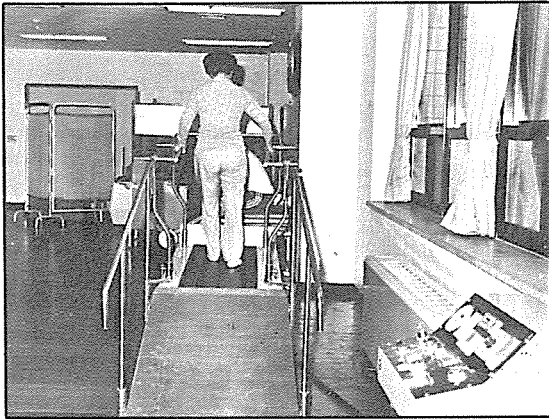
아울러 본원 23개과 5개실의 진료부서중에 재활의

학과(물리치료실과 겸하여 사용함)도 개원부터 진료에 참여하여 타과에 못지않게 큰 몫을 담당하고 지금은 없어서는 안될 요긴한 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재활의학과는 초기부터 다양한 전기·온열기구와 충분한 공간의 운동·작업치료실 그리고 청결한 수치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수고하는 Team work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를 겸직하고 계시는 인주철 과장님을 중심으로 조규보 선생님, 주 민 선생님, 박형준 선생님과 업무를 도우는 2명의 보조원이 있다. 재활의학분야에서는 전기·온열치료실, 운동·작업치료실, 수치료실로 나뉘어져 있고 치료준비를 위한 대기실과 장애자를 위한 전용화장실이 있는데 먼저 전기·온열치료실을 소개하면 7개의 bed에 주로 일본 SAGAI 제품인 고주파기 3종, 저주파기 1종, 적·자외선기 각각 1종씩(NAGAI, 일본), 수치료기 3종, 적·자외선접촉

기 2종(HOHENSONNE 3020, SOLARIUM 6010 A, 독일), L-Traction table system(OG OL-140, 일본, Tx-1 미국)과 C-Traction(OL-60 일본)이 비치되어 있다. 적·자외선검용기는 열형석영수은등의 전신용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고 거리조절과 치료적용이 용이하다. 다만 Electric shock와 Reflector burn은 주의하여야 한다. 운동·작업치료실에는 작업치료 용구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운동치료기를 갖추었으며 특별히 Gait training으로 사용되는 Treadmill의 역할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마비성환자나 보행결여환자에게는 숙달된 치료사에 의해 만족한 결과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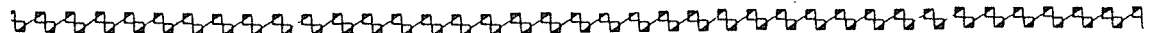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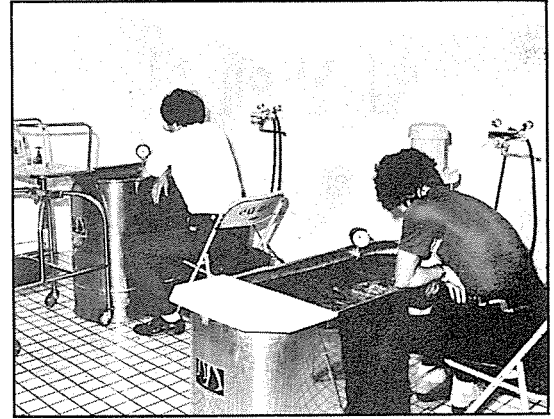
최근에는 Orthion이라는 Multiple therapy system(Model 400E 미국)이 도입되어 환자에게 안락함과치료의 효능을 더 높이고 Frozen Shoulder의 치료와 더불어 Soft tissue stimulation과 Paravertebral massage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수치료실에는 Hubbard Tank와 그 부속품(SAGAI HTL 95 일본), Whirlpool 상·하지용(SAGAI WP-3, WP-5 일본)이 있다.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로 각과별로 다양하며 12층에서 3층에 이르기까지 Car stretcher, Wheel chair로 내려오므로 어떨때는 장터같은 기분이 들때도 있다. 병실왕진치료도 정형외과적환자는 Q.S.E.를, 신경과 환자에게는 Passive Exercise를 주로 실시하며 분주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친절, 봉사, 협동의 정신인 원혼을 바탕으로 힘쓰고 있지만 이제 겨우 2년째를 접어드는 단계라 질적향상과 협회에 별로 한일이 없어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우리 협회와 타분야에서 그 종사자들의 관심과 기대에 준하여 재활의학과에서는 질적으로 좀더 폭넓은 관찰과 깊이있는 학술연구 그리고 서로 좋은 분위기속에서 발표와 좌담을 가져 협회와 지역사회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유준 총장님께서 Rehabilitation Center의 설립에 대한 취지가 강조되므로 재활병동의 가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해 본다.



문 예

친 구

김 정 희 / 대전성모병원

친구.

겨울답게 찬 바람이 거침없이 불어대는 구나. 어제 나린 눈 덕분에 수은주가 한 참 밀도는 아침을 맞이 했다. 그곳보다는 따뜻한 날씨라 일컬어지지만 부모형제 떠나 생전처음 객지(?)라 불리우는 새로운 땅에서 대하는 동장군이라 그런지 예전에 느끼던 추위보다는 더한것 같다. 피부 겉으로 느끼는 차가움보다는 마음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냉랭한 기운이 더욱 추위를 몰아 잔뜩 움츠리게 하는 것도 같다.

친구.

요즈음은 날씨탓인지 게으름탓인지 우직한 겨울잠속으로 빠져드는 듯 싶다.

퇴근하곤 곧장 집으로 가는 나를 발견하며 음악에 빠져 버리는 나를 느끼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책을 끼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 생각속에 빠진다.

과연 이곳에서 지내버린 근 반년되는 세월을 어떻게 흘러보냈는가…….

친구.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지나버린 것들을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따위의 범주에 속하고 싶지 않은 탓인지라 애써 관참은 척, 모든 것들을 포용할 것인양 대단한 척 스스로를 위안하곤 뒤돌아 무표정한 얼굴속에 허우함과 알 수 없는 의문을 담으며, 기대한 만큼의 한없는 실망에 빠지며 나 역시 대단치 않은 무리중의 하나였음을 깨닫는다.

친구.

그만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싶다.